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 석 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017-2018)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9·19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 일년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일대를 연하여 양측 공히 적대행위라 인식될 도발이 없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각론 차원에서 군사합의 이행 항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휴전 이후 수천 번 이상 발생했던 군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남북 젊은이들의 희생도 없었고 서북도서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협하던 해상사격도 멈추었다. 과거 여러 차례 맺어졌다 깨어지기를 반복한 다른 군사합의에 비해 ‘9·19군사합의’가 나름 지속성을 갖는 이유는 양측 공히 군사준비태세와 평시작전태세의 저하 없이 합의 이행과제를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9·19군사합의’를 “실질적 종전선언”이라 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안보포기 각서이자 항복문서”라 폄하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 지리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위주로 합의 이행과제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이나 불가침협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그러나 군사합의를 가지고 안보포기, 항복문서를 운운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일단의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만약 ‘9·19군사합의’가 안보포기 각서나 항복문서라면 일년이 넘는 지금 썸 남한 땅 어딘가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하는 것 아닌가? 연합방위의 수장인 연합사령관의 반대 기자회견 한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합의가 실질적 종전선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군사합의로 우리의 대북군사준비태세나 평시작전태세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불합리하며, 그것도 부족해서 안보포기 각서나 항복문서라 말하는 것은 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9·19군사합의’는 군사적으로는 한정적이고, 전략적으로는 필수적이고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정전협정 틀 내에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및 충돌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반적 군사준비태세 및

평시작전태세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작하기 위해 남북간 최소한의 실천적 신뢰 구축을 쌓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는 언젠가 다시 합칠 오천년 한민족으로서 냉전적 이념대결을 넘어 약속을 맺고 지켰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정전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 펜타곤과 유엔군사령부가 ‘9·19군사합의’를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기획되었고, 지난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 위반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군사합의의 이행과제인 JSA 비무장화 덕분으로 양측 경비병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각국 정상들이 함께 걸을 수 있었고, 사전 짧은 준비로 회담 개최가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의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군사합의 이행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중국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 가능성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단 70여년 동안 한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분단의 웅덩이에서 쳇바퀴 돌듯이 대결과 충돌을 반복하였다. 그나마 수레바퀴가 후진하여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정전체제가 미흡하나마 작동했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스스로 만든 의미 있는 산물인 동시에, 남북이 스스로 건설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지킬 수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난 일년간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의 충돌이 방지되고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남북 군이 약속을 지켰다는 점은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의 길에 중요한 사례와 경험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강제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은 남북한 공히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각론 차원에서 군사합의 이행 항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군사합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일방의 대응행동으로 군사합의의 이행 항목 위반을 야기할 여지도 부인하기 어렵다.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한 사이에 맺고 깨기를 반복했던 많은 합의들의 전철을 또 밟기에는 그 전략적 필수성과 역사적 필연성이 넓고 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9·19 군사합의’가 종잇조각에 그치지 않고 지킬 만한, 지킬 수 있는 합의가 되도록 한자 한자 만들어내고 치열하게 협상한 과정을 되새기며 ‘9·19 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전략적 필수성과 역사적 필연성이 증명되기를 기원한다.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바퀴가 분단의 웅덩이에서 벗어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운동을 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가 끌고 가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